

“뱃길 안전 위해 ‘여객선 공영제’ 시급”

여수시, 거문도간 결항 재발방지 대책 해수부에 건의키로 정부·지자체가 기피 항로 직접 운영 해야 서비스 향상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연안 여객선사의 운영난을 줄여 안전 운항 방안으로 논의됐던 여객선 공영제가 조속히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국 연안 항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도의 경우 노후 선박위주로 여객수송이 이뤄지고 선박 고장 등으로 결항하면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안정적인 여객수송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촉구키로 했다. 여수시는 14일 여수지역 주요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대책으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여수시는 최근 결항 사태를 빚었던 여수~거문도 항로의 여객선 결항 재발방지대책으로, 정부에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함께 결항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지정을 조만간 건의하기로 했다.

여객선 공영제(연안 해운 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에서 직접 여객선을 운영하는 제도로, 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여객수송과 안전성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여수시의 판단이다.

섬이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34개 선사가 55개 항로에 92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서

운항하고 있는 연안 여객선 수는 전국(173척)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항로가 적자 상태로, 선사들의 추가 투자가 거의 없어 10년 이상 된 노후 선박들로 여객과 화물 수송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 확보는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수시 이영택 섬 자원개발과장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권한을 자치단체에게 이양해 줄 것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 확대 지원 등을 지난 2월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면서 “섬 주민과 휴양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안정적인 항로 유지대책 마련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문도 항로 등 주요 항로

에서 2개 이상의 선사가 경쟁체제로 운항할 수 있도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른 시일 안에 신규 선사를 유치하는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면서 “그 동안 2차례 여객운송사업자 공모에서 응모자가 없었는데, 앞으로 경쟁체제 운항이 쉽지 않다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지정’과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거문도 항로를 단독으로 운항하던 오션호프해운사의 줄리아아쿠아(228t, 306명)가 선박검사 후 휴항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체투입한 ‘조국호(396t, 358명)’가 4차례나 잇따라 기관고장으로 회항하는 바람에 4일 동안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대책을 요구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선박 좌초·급변침시 육상센터에 자동 경보 ‘e-내비게이션’ 포럼 발족

2020년까지 차세대 선박운항 체계를 구축하는 ‘e-내비게이션’사업의 첫 단추인 민·관협력 포럼이 14일 발족했다. e내비게이션은 첨단 장비와 통신망을 활용해 선박 운항자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뜻한다.

현재는 항해사가 운항할 때 레이더와 풍향, 풍속, 수심, 전자해도 등 10여 개 자료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일이 살펴야 하고, 정보화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아 선박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또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틀었음에도 진도·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비상상황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이날 발표한 e내비게이션 전략이행계획에 따르면 선박 내 다양한 항법시스템 장비들이 표준화·디지털화되고, 선박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각종 정보가 육상의 e내비게이션 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e-내비게이션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6년부터 5년 동안 기술개발에 669억원, LTE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639억원 등 총 130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연합뉴스



평택항 바닷물로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
박원순 서울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주철현 여수시장, 이종천 덕수이씨 총무공파 총친회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을 하고 있다. 이날 친수식에 사용된 물에는 현충사 경내 이순신 장군 생가터 우물물과 세월호 사고 1주기를 앞두고 평택항 바닷물이 함께 사용됐다. /연합뉴스

전남자원봉사센터 세월호 1주기 자원봉사

전남자원봉사센터가 세월호 사고 1주기에 맞춰 15일부터 17일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군과 함께 1주기 추모행사 및 자원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센터는 2박3일간 팽목항을 찾아온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추모객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제공하며, 바닷가의 기온 차를 고려해 핫팩, 무릎담요를 준비하고, 팽목항 일대 환경 정리를 맡게 된다.

1주기 추모 기간에 피해 가족들과 많은 추모객들이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 지난 3월13일 기관(단체), 기

업, 종교단체, 개인봉사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간결하고, 가족의 마음으로 검소하게’ 1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외부에서 진도를 찾는 추모객들은 가급적 대중교통편을 이용하고, 따뜻한 복장과 생수 등 개인용품 준비하도록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사전에 공지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은퇴 후에도 팍팍한 노후

연간 생활비 4560만원 필요...실제 소득은 1000만원 부족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생활비가 연간 456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기대하지만, 실제 소득은 이보다 1000만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의 의뢰로 가구주가 20~59세인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은퇴 연령을 60세로 가정할 때 은퇴 후 연간 456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퇴직 직전 가구 소득은 799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은퇴 후에도 직전 소득의 57%가량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저축 등을 포함한 예상 은퇴 소득은 기대 생활비보다 1000만원 이상 밀도는 연간 3479만원으로, 은퇴 직전 소득의 44%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적정 소득 대체율인 60~7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기대 소득 비율인 ‘목표 소득 대체율’은 57%, 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예상 수입의 비율인 ‘은퇴 소득 대체율’은 44%였다. ‘목표 소득 대체율’에서 ‘은퇴 소득 대체율’을 뺀 ‘은퇴 준비 격차’는 2년 전 피델리티의 같은 조사 때의 18%보다는 5%포인트 줄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예상 은퇴 소득은 3506만원에서 3479만원으로 비슷하지만, 은퇴 후 기대 생활비가 5008만원에서 456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때문이다. 또 소득 수준별로 은퇴 준비 정도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은 ‘은퇴 준비 격차’가 -1%로 기대 소득보다 은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집단은 은퇴 준비 격차가 49%로 요구하는 돈보다 실제 소득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KTX 타고 서울가서 성형 할래”

밝은광주안과 설문, 수도권 병원 선호도 성형외과 최고

광주지역 젊은이들은 KTX를 타고 수도권 병원에 갈 경우, 성형외과를 우선적으로 찾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암이나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밝은광주안과가 광주지역의 20~30대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형외과(27.1%)·암 진료(26.5%) 순으로 수도권 병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강검진(11.9%), 피부과(10.9%), 시력교정수술(9.6%), 외과(7.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병원 방문을 원하는 이유로는 ‘최첨단 장비 등 기술력이 뛰어나서’(60.3%)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라는 인지도(19.1%), 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 근무 병원(11.1%) 등이 꼽혔다.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의료계 노력으로는 ‘최신장비 도입’(28.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수술가격 인하(28.1%), 서비스 강화(19.7%), 수도권 출신 의사 영입(14%) 순으로 답했다.

또 시력교정술을 하기 위해 수도권 병원을 방문하겠다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1.5%가 가겠다고 밝혀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실업급여 150만원까지 압류 못해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지급제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제도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해 지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한편,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민사집행법, 국제수입법, 국민연금법 등도 압류금지 한도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동강대학교 동창회비 총동창회로 이전 공고

동강대학교 6만 동문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총동창회가 2014년 7월 25일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들께서 납부해 주신 동창회비는 대학에서 직접해 왔지만 총동창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납부당시 목적대로 다음과 같이 총동창회로 이전하고자 공고 합니다.

1. 동창회비 이전기간 : 2015. 5. 14일까지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dkc.ac.kr> (학교 소식란)

2015년 4월 15일

동강대학교 총장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행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